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광주 승마 위상 높일 것”



최철원 광주승마협회 회장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화합과 발전을 통해 광주 승마의 부흥을 이끌겠습니다.”

최근 전남 담양 인원산업㈜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원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 회장(인원산업㈜ 대표 이사)은 “승마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1900년 파리 올림픽 당시 정식 종목에 채택됐을 만큼 역사가 깊은 스포츠다.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통해 전문선수들과 동호인들의 성장을 도모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승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철원 회장은 지난 2004년 처음 승마를 접하면서 종목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어릴 때부터 운동과 동물을 좋아했던 그는 영주승마장을 찾아 강습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사업장을 담양으로 옮기게 된 그는 지역에 있는 승마장을 다니면서 말 2필을 구입, 아내와 함께 본격적으로 승마를 시작했다.

승마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코로나 시기 이후 열린 해남지구력대회 10km에 출전해 1등, 장애물 코스에 출전해 무감점 완주를 달성했다. 이어 익산 지구력 대회에서는 20km에 출전해 10위권에 안착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도 활약했다.

그가 협회 지원에 대한 욕망을 느낀 것 또한 다양한 대회를 뛰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이 시기다. 승마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림피아까지 채택된 종목임에도 광주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승마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승마장에서 만난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주 승마의 애로사항이 많고, 열악한 상황임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같이 승마를 즐기던 사람들과 함께 광주 승마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결심했다. 결국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 회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고, 지난 1월 16일 광주시승마협회 사무실에서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 개표 결과 기호

동호인 출신…각종 대회 활약

승마인 60%·비승마인 40%

공정한 협회 임원진 구성

영주승마장 시설 개선 집중

유소년 인재 육성 등 과제

필마 확보 지원정책 다변화

2번 유형은 후보를 제치고 회장직에 당선됐다.

최 회장은 “종목 발전을 위한 뜻을 품고 회장직에 출마했지만, 막상 당선이 되다 보니 할 일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장에서 선수들이 많이 따라주고 기대를 한다. 덕분에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장 취임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진 구성에 몰두했다.

먼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협회 집행부에 현역 선수를 가입시켰다. 광주 소속 선수들을 모두 불러 선수 대표를 선발한 것이다. 그는 또 협회 투명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지역 베테랑 선수를 광주 협회 임원에 가입시켰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광주승마협회 집행부는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승마인 60%, 비승마인 40%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집행부 임원 중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인을 적절히 조합했다. 비승마인의 경우 법조인과 회계사, 체육 담당 대학교수 등을 초빙했다”면서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조직을 정비한 그의 다음 최우선 과제는 광주 대표 승마장인 영주승마장의 환경 개선이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영주승마장은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 실제 승마장 회원을



최철원 광주시승마협회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통해 전문선수들과 동호인들의 성장을 도모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승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외한 대기 인원만 150여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데다 운영 적자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승마장은 바닥에 구사가 있어야 한다. 대회에 뛰는 말들이 태생적으로 발목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 승마장 바닥에는 구사가 깔리지 않아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태다”면서 “운영 적자도 심각하다. 매년 2~3억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으로 인

해 우수선수 발굴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영주승마장이 1986년 개장 이래 근본적인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과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부지 확보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측 확보와 고비용 필마 확보 또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승마는 종목 특성상 선수층이 얇다. 말 자체가 위

낙 고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 회장은 초·중등생 등 유소년들이 승마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마사회는 퇴역마를 체험마로 쓸 수 있게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 지원책을 받기 위해 영주승마장에 그린존 승마장 인증을 받았다. 체험 승마를 통해 어린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향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수 필마 확보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한다. 승마는 모든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동물과 같이하는 스포츠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좋은 말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대회 출전 말들은 전부 수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대장애를 종목에 출전하는 말의 경우 1억을 넘어간다. 여기에 매년 관리비로만 2000만원이 들어가고, 경기 때마다 말 운송비와 체제비는 별도다.

이에 최 회장은 승마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원금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협회 임원들로부터 임시일발 돈을 모아 선수들을 위한 육성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의 필마 지원 독려에도 나선다.

최 회장은 “현재 광주에는 생활체육인들이 엘리트 선수들에게 말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제 순미경 회원, 최정선 회원, 정기중 회원, 김영재 광주승마협회 이사 등이 선수들에게 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리비까지 부담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말을 지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었다”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해서 생활체육인들이 말을 지원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엘리트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회장은 “승마는 말과의 안전한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과 동물 간의 최고의 협연이다. 위대한 스포츠인 승마를 통해 광주의 이름을 전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올려놓겠다”면서 “승마 인재 육성에 집중하며 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KIA 최형우·박찬호·김도영, 별들의 무대 선다



KBO, 올스타 ‘베스트 12’ 명단 확정 최형우, 선수단 투표 역전…극적 1위

KIA타이거즈 김도영, 박찬호, 최형우가 별들의 잔치에 출전한다.

KBO는 지난 23일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를 확정해 발표했다. 명단은 이날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결정됐다.

KIA에서는 나눔 올스타에 김도영, 박찬호, 최형우가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은 3루수 부문에서 팬 투표 109만9680표, 선수단 투표 70표를 획득해 총점 27.78점으로 이 부문 1위에 선정됐다.

박찬호는 유격수 부문에서 팬 투표 93만7896표, 선수단 투표 141표를 얻어 총점 30.62점으로 이 부문 선두를 확정 지었다.

지난해 최고령 올스타 MVP인 최형우는 올해 지명타자 부문에서 팬 투표 94만9610표를 득표, 126만2466표를 얻은 문현빈(한화)에게 크게 뒤졌다. 그러나 선수단 투표에서 166표를 얻으며 총점 32.98로 문현빈(총점 32.71)을 0.27점 차이로 제치고 베스트 12에 올랐다.

이외에도 나눔 올스타 베스트12에는 선발투수 쏜세(한화), 중간투수 박상원(한화), 마무리투수 김서현(한화), 포수 박동원(LG), 1루수 오스틴(LG), 2루수 박민우(NC), 외야수 박해민(LG)·플로리얼(한화)·박건우(NC)가 포함됐다.

특히 김서현은 총 178만6837표를 얻어 KBO

올스타전 역대 최다 팬 투표 득표자에 올랐다.

나눔 올스타와 맞설 드림 올스타 베스트 12에는 선발투수 원태인(삼성), 중간투수 배찬승(삼성), 마무리투수 김원중(롯데), 포수 강민호(삼성), 1루수 디아즈(삼성), 2루수 고승민(롯데), 3루수 최정(SSG), 유격수 전민재(롯데), 외야수 구자욱(삼성)·레이에스·윤동희(이상 롯데), 지명타자 전준우(롯데)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팬 투표는 총 352만9258표가 집계됐다. 지난해(322만7578표) 대비 약 9% 증가하며 역대 최다 투표수를 기록했다.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박진만 감독, 나눔 올스타 이범호 감독)은 각 팀 13명씩, 총 26명의 추천선수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세계양궁대회 성공 개최 예열 시작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광주국제양궁장서 29일까지 열전

‘2025 광주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열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가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막, 29일까지 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결승전이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져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프레데이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정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선수단, 임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개막식에서는 개회선언, 우승기 반환, 환영사, 대회사, 선수 선서 등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대한양궁협회와 광주광역시양궁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광주광역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 선수(광주 남구청), 구본찬 선수(현대제철),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훈영 선수(인천시청), 2015 주니어 세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김수빈 선수(광주시청) 등 6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와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국제양궁장은 물론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을 치름으로써 2025 광주현대세계양궁대회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FC 변준수, 생애 첫 국가대표팀 발탁

EAFF E-1 풋볼 챔피언십 태극마크…“팀 대표해 가치 입증할 터”

프로축구 광주FC의 ‘철벽’ 변준수가 생애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치러지는 2025 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23인의 명단이 확정됐다. 변준수는 이번 명단에서 수비수에 이름을 올렸다. 변준수는 올 시즌 K리그 17경기에 출전해 부동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공격포인트(1골 2도움)까지 기록해 공격 본능까지 뽐내고 있다.

또 ACLE에서도 9경기에 출전해 팀이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8강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회 이후 AFC에서 선정한 ‘Future Stars of the Season’ 최종 10인으로 뽑히며 잠재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변준수는 현재 리그에서 클리어링 391(101개), 공중경합 승리 109(67개) 등에 오르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패스 횟수 139(788개), 전방패스 횟수 59(353개) 등 빌드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변준수는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광주FC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음달 7일 오후 8시 중국,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 24분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송하중 기자 hajong2@